농어촌공사 경주지사, 농업용수 안정 공급 방안 논의

박형기기자 | 승인 2026.11.12

> 운영대의원 30여 명 참석…영농 현장 애로 청취·농업기반시설 관리 개선 모색



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12일 회의실에서 운영대의원 및 관계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6년 하반기 운영대의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주지사 제공

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지역 농업인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용수 공급 안정화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12일 회의실에서 운영대의원과 관계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운영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주지사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와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물관리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지역별 영농 여건과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운영대의원들은 농업용수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시설 관리에 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의견을 제시했다.

운영대의원회는 농업인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의견을 공사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와 농업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박기철 경주지사장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사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대의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지역별 영농 여건을 세밀하게 살펴 농업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노후·취약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힘써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형기기자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